

한국 대중가요에 나타난 「가시리」 연구*

김유미** · 이승하***

I. 서론

II. 본론

1. 고려속요 「가시리」와 대중가요 <가시리>의 차이점과 공통점
2. 대중가요 <가시리>의 보편적 주제와 상투적 표현
3. 대중가요 <가시리>의 후렴과 코러스의 기능적 유사성

III. 결론

국문요약

고려속요 「가시리」는 고려시대의 노래지만 현대에 와서도 유사한 내용, 유사한 정서로 슬하게 노래로 만들어졌다. 「가시리」는 애초에 민중에 의해 불리었던 민요였기에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가시리」가 대중의 공감을 얻은 것은 사랑과 이별이라고 하는 보편적 정서를 다루면서 화자의 솔직한 태도가 드러나고 쉽고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속요는 기본적으로 서민 하위문화의 속성을 고스란히 지니면서도 상층과 그들의 주변인에 의해 창작, 전수되었다. 당시 민중에 의해 향유되었던 민요의 특성이 궁중악의 음악적 특성과 결합되면서 더욱 복잡하고 세련된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민요는 민중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민요가 민중의 노래였으며 그들의 질박한 삶의 정서를 반영하는 서민문화라는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민요와 대중가요는 충분히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이로써 민요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고려속요와 대중가요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속요는 궁중에서 기녀와 왕, 권신들에 의해 향유되었고 그들을 통해 민간에 전파되었지만 대중가요는 공연장에서, 또 방송매체를 통해 대중에 의해 더욱 널리 향유된다는 것이다. 또한 속요는 여음과 조흥구 등을 통해 흥을 돋우고 정서를 표출하면서 문학성을 획득하지만 대중가요는 상업성에 초점을 맞추어 창작된다.

고려속요 「가시리」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별과 사랑에 대한 감정과 정서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본래 민중에 의해 창작되었던 민요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가요 <가시리>

* 이 논문은 BK21 문화예술산업혁신연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김유미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석사수료.

*** 이승하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는 고려속요와 다르게 ‘민중에 의해서’ 창작된 노래가 아니라, ‘대중을 위해서’ 창작된 노래다. 이런 이유로 「가시리」의 변모 양상은 하나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다채로운 양상을 나타낸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여러 곡의 <가시리>는 각각의 노래가 발표되던 그 시기 대중가요의 흐름을 반영했다. 대부분의 대중가요 <가시리>는 원작의 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노래가 창작되던 시기의 대중적 기호를 가미했다. 그러한 수용과 변용을 거치면서 대중가요 <가시리>는 원작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고, 원작에서 한참 멀어지기도 했다.

앞으로도 <가시리>는 대중이 즐겨 듣고 부르는 가요로 거듭해서 재탄생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정서적 정화를 제공하고 살아가는 힘을 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려속요 「가시리」는 과거의 노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래, 나아가 미래의 노래로 불리어질 것이다. (주제어: 민요, 고려속요, 대중가요, 가시리, 고전, 현대성, 노래, 사랑과 이별)

I. 서론

고전문학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는 작품이다. 고전이 시대를 뛰어넘어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후대인이 공감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고전문학 가운데 여러 장르에 걸쳐 가장 많이 재창조된 작품은 「춘향전」이지만 노래로 가장 많이 불린 것은 「가시리」이다. 지금까지 「가시리」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부른 가수는 버블 시스터즈·SG워너비·서주경·이명우·홍태량·진주·이규영·크로스 팬던트·이창배·장연주·자전거 탄 풍경·이영화·까치와 엄지·하수영 등인데 이들이 부른 노래는 제목도 ‘가시리’이지만 고전 「가시리」에 담긴 내용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노래가 발표되었던 각 시기별로 당시의 음악적 특성과 대중의 감수성과 감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가시리」는 애당초 고려시대의 ‘노래’였다. 고려시대 시가의 명칭은 여러 가지로 불리었는데 그중 「가시리」는 고려속요로 분류된다.¹⁾ 속요란 본디

1) 고려시대 시가의 명칭은 고려가요(이명구, 조동일), 별곡(정병욱), 고려가사(김상억) 등 여러 가지이며, 그 하위분류도 장가와 경기체가(조운제), 별곡과 별곡체(이병기), 속요와 경기체가(이명구, 조동일, 박철희), 청산별곡류와 한림별곡류(정병욱) 등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속요를 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시속(時俗)의 노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은 발생 시기나 작자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형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지 않다.²⁾ 물론 고려속요는 널리 알려진 대로 왕실에서 주로 불린 노래였다. 그러나 고려속요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속요의 변개 과정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각 지방의 관기와 무녀 등이 왕립음악기관인 태악서와 관현방에 소속되어 왕실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요가 궁궐로 유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속요의 작자는 민요를 불렀던 민중계층은 물론 기녀, 악공, 나아가 왕과 측근 신하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³⁾ 민요가 왕실로 수용되고 궁중음악에 얹혀 불리면서 반복구와 후렴구가 삽입되는 등 가사와 형식에 있어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다시 민중에게 전파되면서 더욱 호소력 있는 노래로 탈바꿈했다. 이처럼 고려속요는 민요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듯 고려속요는 기본적으로 서민 하위문화의 속성을 고스란히 지니면서도 상층과 그들의 주변인에 의해 창작, 전수되는 음악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민중에 의해 향유되었던 민요의 특성이 궁중악의 음악적 특성과 결합되면서 더욱 복잡하고 세련된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민요가 민중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많은 이들이 노동을 하며 함께 노래를 불렀고, 노래를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대중가요가 형성된 시기는 1920년대이다. 당시는 전통적 노래 양식인 잡가와 외래적 음악 양식인 창가가 공존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일제의 지배 아래 유입된 대중매체가 당시의 노래와 만나 상업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결국 외래의 노래문화가 우리나라 대중가요로 정착된 것이다. 이로 인해 대중가요의 출발은 항상 전통단절론의 혐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⁵⁾

2) 박노준, 「속요」, 『한국문학개론』, 개문사, 1992, 74쪽.

3) 김수경, 「속요의 현대화, 그 몇 가지 양상에 관한 시론」, 『한국시가연구』 19집, 한국시가연구학회, 2005, 53쪽.

4) 김수경, 위의 글, 51쪽.

그러나 민요가 민중의 노래였으며 그들의 질박한 삶의 정서를 반영하는 서민문화라는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민요와 대중가요는 충분히 연관성을 지닌다. 대중가요란 말 그대로 대중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뜻한다. 이것은 민중의 노래인 민요와 유사한 속성이다. 이로써 민요와 대중가요는 당대 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집단성을 갖는다. 민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고려속요 또한 대중가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고려속요는 궁중에서 기녀와 왕, 권신들에 의해 향유되었고 그들을 통해 민간으로 전파되었지만 대중가요는 공연장에서 직접 들려지기도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더욱 널리 전파된다는 점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속요는 여음과 조흥구 등을 통해 흥을 돋우고 정서를 표출하면서 문학을 획득하지만 대중가요는 상업성에 초점을 맞추어 창작된다는 점이다.

현대에 이르러 고려속요 중 「가시리」만이 지속적으로 노래로 만들어져 애창되고 있다. 「가시리」가 가곡으로 만들어진 사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⁶⁾ 대중가요로 불려진 「가시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민요와 속요의 특성이 대중가요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용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중가요 <가시리>의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고려속요 「가시리」와 대중가요 <가시리>의 차이점과 공통점

「가시리」는 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노래로 작자, 연대 미상의 고려속요이다. 이 노래의 시적 화자는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그다지 표현하지 않으면서 임에게 자신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달하

5) 박애경,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세상, 2000, 24~25쪽.

6) 오승훈, 「합창곡 분석 연구: 김용진 작곡 「가시리」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2006.

유정준, 「함태균 혼성합창곡 「가시리」 분석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02.

는 가녀린 여인상을 보여준다.) 「가시리」는 별다른 수사나 기교가 없는 형태상의 소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속요 중에서 그 원형적 정서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언급되고 있다.⁸⁾ 이는 「가시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이별과 사랑의 정서를 그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은 사랑하고 이별도 한다.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한다. 사랑과 이별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른데, 「가시리」의 화자는 임에게 가지 말라며 붙잡지 않는다. 이별은 이미 전제된 것이고, 붙잡아도 소용없는 바에야 차라리 화자 자신이 보내주는 방향으로 슬픔을 극복하려고 한다. 여기서 화자는 전통적인 한국적 여인상의 모습을 지닌다. 전적으로 남성에게 복종하고 순응하는 여인이다. 이별의 순간에 울며불며 임을 부여잡고 상황을 부정하려 하기보다는 순순히 놓이주며 다시 오라는 기원을 마음속으로 빌고 있다.⁹⁾ 「가시리」의 화자는 이별로 인한 슬픔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가시리」의 화자는 여인으로 상정되는 ‘나’로 일관되며 이때 후렴구는 화자의 소리외는 다른 별개의 목소리를 지닌다. 그러나 「가시리」 전편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은 ‘나’가 아닌 얼굴도 소리도 보이지 않는 ‘임’이란 존재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임’이며 화자인 ‘나’는 수동적 종속을 보일 따름이다. 임의 심사를 거스르까 만류도 하지 못한 채, 아무런 구체적 대응도 없이 떠나보내는 서정적 자아의 모습에서 두 인물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느낄 수 있다.¹⁰⁾ 하지만 이별로 인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화자가 주체가 된다. 이별의 순간 슬픔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임이 떠나가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드러낸다. 「가시리」의 화자는 이해하기

7) 이정선, 「가시리의 편사와 문학적 해석」, 『한국언어문화』 41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232쪽.

8) 송태윤, 「고려가요의 텍스트성 분석—응결성과 응집성을 중심으로」, 조선대 박사논문, 2005, 136쪽.

9) 권수정, 「고려가요 화자 연구—이별의 노래를 중심으로」, 창원대 석사논문, 2002, 49쪽.

10) 권수정, 위의 글, 46쪽.

쉬운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많은 이들로부터 호소력을 얻게 된다.

『악장가사』 소제 「가시리」의 전문에서 여음구와 후렴구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다.

가시리 가시리있고 버리고 가시리있고
 날리는 엇디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리있고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설은 님 보내 읊노니 가시는듯 도셔오쇼셔

「가시리」의 화자는 1연과 2연에서 임이 자신을 버리고 간다는 것을 애처롭게 강조하고 3연과 4연을 통해 나의 마음을 아프고 서럽게 만들어 놓고 떠나가는 임에 대해 토로한다. 여기서 화자는 떠나가는 임을 ‘감히’ 붙잡지 못한다. 대신 신세한탄이나 넋두리로만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다. 나를 떠나가는 임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가시리」의 화자는 임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절제한다. 그러므로 임의 결정에 절대적 순종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아픔을 감내하는 모습과는 구별된다. 여기서 시적 화자의 이중적 태도¹¹⁾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가시리」의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다. 이별로 인한 슬픔을 절제하며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려 한다. 이별로 인한 고통은 고통인 동시에 희망이며, 미래를 긍정하기 위해 현재를 부정하고 자신을 죽이는 비장한 결단이 된다.¹²⁾ 그리하여 고려속요 「가시리」의 화자는 사랑과 이별에 있어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시리」의 화자는 솔직하고 절제된 표현을 통해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다. 현재 가사가 전하는 속요 14편 가운데 「정읍사」, 「만전춘」, 「서경별곡」, 「쌍화점」, 「가시리」, 「이상곡」, 「동동」, 「정석가」가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다.¹³⁾ 이는 속요의 특징인 개방적 정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11)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69쪽.

12) 김일렬, 애정시가의 시가사적 위치와 그 작품 세계, 『국어국문학』 84호, 국어국문학회, 1976, 69~70쪽.

앞서 언급했듯 고려속요의 창작자는 민중이라 볼 수 있다. 고려속요가 민중의 삶의 애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가요 역시 사랑과 이별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그러나 고려속요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민중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해’ 창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대중가요는 상업적 목적을 지닌 장르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중적 코드를 이용하여 보다 더 깊고 넓게 대중에게 다가가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 이유로 대중가요는 대중에게 예속되어 있다. 이처럼 고려속요와 대중가요는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솔직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유롭기만 한 장르는 아니라는 것이다.

고려속요에서와 같이 한국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사적(私的) 인간관계는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이었다. 이러한 경향성을 1970~80년대의 억압적 문화정책으로 인해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의 제한성 때문이라고도 하고, 대중문화가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대중의 비판적 사고를 빼앗기 위한 정책에 편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강현두 · 김창남 · 유문무 · 이영미 · 조항제 등).¹⁴⁾

2. 대중가요 <가시리>의 보편적 주제와 상투적 표현

한국 대중가요의 흐름상 큰 틀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노래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사랑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¹⁵⁾ 1980년대에는 사랑의 감정 자체에 대한 노래가 많았다면 1990년대에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감정이 다양해진다. 삼각관계나 오래된 연인의 권태를 다루는 등 이전과는 다른 사랑의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1980년대 가요에는 이별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별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다.¹⁶⁾

대중가요 <가시리>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곡은 1977년 MBC 대학가요

13) 김수경, 앞의 글, 55쪽.

14) 조원동, 「대중가요 가사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정서 탐색: 해방 이후부터 1996년까지의 가요를 대상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1, 26쪽.

15) 강주선, 「대중가요 가사의 텍스트에 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4, 39쪽.

16) 강주선, 위의 글, 41쪽.

제에서 은상을 받은 이명우의 것이다. 이 곡은 이스라엘 민요에 바탕을 두고 편곡한 헤리 벨라폰테의 <Erev shel shoshanim>라는 곡을 개사한 것이다. 이명우는 이 노래를 각색하여 고려속요 「가시리」와 「청산별곡」을 합성하고 후렴구는 「청산별곡」의 것을 사용했다. 이명우의 <가시리>는 원 텍스트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대중은 아무 거리낌 없이 고려시대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화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서적 대리 경험을 맞볼 수 있다.¹⁷⁾ 이로써 고려속요와 대중가요의 거리는 좁혀지게 된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바리고 가시리잇고
 날리는 엇디 살라하고 바리고 가시리잇고
 알리알라성 알리알리 알라성
 알리알리알리 알라리 알리알리 알라성
 잡사와 두어리마나난 선하면 아니올세라
 설온님 보내옵나니 가시리단닥 도셔오셔서
 알리알리 알라성 알리알리 알라성
 알리알리알리 알라리 알리알리 알라성
 청산 별곡이야~ 아~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반복) 알리알리 알라성 알리알리 알라성
 알리알리알리 알라리 알리알리 알라성

—이명우, <가시리> 전문¹⁸⁾

이명우의 <가시리>가 MBC 대학가요제 그해 입상곡 가운데서도 널리 애창된 이유는 고려속요 「가시리」의 내용을 그대로 살리면서 익숙한 「청산별곡」의 후렴구를 곁들여 친근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가시리」와 「청산별곡」을 혼합하여 노래를 만든 것일까. 우선 유신 말기라는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들 수 있다. ‘가버린 암’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회귀를, ‘청산’에서 상실과 좌절의 이미지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그

17) 김수경, 앞의 글, 82쪽.

18) 앨범명: 1, 2회 실황 대학가요제, 작사: 고려가요, 발매일: 1978.3.1.

19) 김수경, 앞의 글, 69쪽.

런 의미에서 이명우의 <가시리>는 개인적인 노래만으로 머물지 않는다. 여기서 민요와 유사한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민요가 민중에 의해 불렸듯이 대중가요는 대중에 의해 불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가요가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됨도 알 수 있다.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한 억눌림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명우의 <가시리>는 이후에 자전거 탄 풍경²⁰⁾과 까치와 엄지²¹⁾에 의해 리메이크되어 불렸다. 특히 2005년에 발표된 자전거 탄 풍경의 <가시리>는 이명우의 노래를 편곡하여 불렸다. 자전거 탄 풍경은 20~30대 젊은 이들에게 꽤 인기 있는 그룹인데, 그들이 이명우의 <가시리>를 리메이크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 <가시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친근하게 수용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80년대에는 사랑의 감정 자체에 대한 노래가 많았다.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1981년에 발표된 <가시리>는 이수영이 불렀고, ‘윤항기 · 윤복희의 대표곡 모음’에 수록되어 있다. 이 노래에서 이별의 이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이별의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화자의 태도만 엿볼 수 있다.

가시리 나를 두고 가시리
헤어지면 만난다는 것
인생의 길이런가
언제 다시 서로 만나면
그 혼한 돌이 되어
징검다리 되어 드리리

—이수영, <가시리> 전문²²⁾

이 노래는 고려속요 「가시리」의 앞부분을 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화자는 임과 헤어지는 상황이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시는 임을 붙잡지도 않고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만나면 “그 혼한 돌이 되어 징검

20) 앨범명: 2.5집 Made in JPT, 발매일: 2003.9.9.

21) 앨범명: 까치와 엄지 7080라이브통기타, 발매일: 2006.5.26.

22) 앨범명: 윤항기 & 윤복희 대표곡 모음, 작사: 엄진, 발매일: 1981.4.1.

다리”가 되겠다고 한다. 이는 고려속요 「가시리」 속 화자와 유사하다. 절제된 태도로 이별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70년대와 80년대까지의 <가시리>는 원곡의 정서와 느낌을 거의 그대로 살려 많은 이들에게 호소력을 얻을 수 있었다.

1990년대의 대중가요는 주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감정이 다양화되고, 이별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이명우의 <가시리>가 발표되고 10년 뒤인 1992년 11월에 발매된 남상규의 <가시리>는 90년대 대중가요의 흐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노래에서 임은 “잡은 손 뿌리치며 기어이” 가고 만다. 화자는 그런 임의 행위에 대해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을 있는 그대로 토로한다. “정마저 가져가”라고 말하며 “한사코 붙잡아도 기어이 떠나”는 임을 원망한다. 원작 「가시리」와는 다르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자를 발견하게 된다.

못 가오 못 갑니다 날 두고 못 갑니다
 잡은 손 뿌리치며 기어이 가시려오
 이왕에 가실 바엔 정마저 가져가지
 든 정 남겨 어찌하라고 그냥 그리 가시려오
 못 가오 못 갑니다 날 두고 못 갑니다
 한사코 붙잡아도 기어이 떠나려오
 이왕에 떠날 바엔 미련마저 가져가지
 미련 남겨 어찌하라고 그냥 그리 가시려오

—남상규, 「가시리」 전문²³⁾

가사를 살펴보면 문장 종결어미로 ‘~합니다’와 ‘~히려오’가 반복되는데, 이를 통해 떠나는 임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결심을 확고하게 드러내주어 의지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렇듯 남상규의 <가시리>는 원작에서 표현되었던 직설적인 어법과 이별로 인한 한의 정서를 드러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에 대한 원망과 미련을 토로한다. 고려속요 「가시리」의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서도 임의 입장을 헤아리는 성숙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르다.

23) 앨범명: 남상규 Best Collection, 발매일: 1992.11.

2000년대에 들어 대중가요는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사랑과 이별에 대한 표현이 좀 더 다양화될 뿐 아니라 그 표현들이 더욱 다듬어지고, 은유와 직유 등을 사용하여 문학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가요의 주된 특성인 직설적 화법과 평이한 표현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화되었을 뿐이다. 이는 대중가요가 철저히 대중을 위해 창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중가요는 궁극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업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01년에 발표된 김상민의 <가시리>에서도 화자의 직설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 이 노래 역시 고려속요 「가시리」에서처럼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다. 그런데 앞에 제시되었던 노래들과 조금 다른 것은 이별로 인한 슬픔이 보다 더 감각적이며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다신 그대와 잠들 수도 없고
같이 창가에서 아침을 볼 수도 없네
바라 볼 수도 없는 우리의 이별은
내리는 빗속에 가려진 아픔이여
꿈을 꾸듯 떨어진 우리의 사랑은
한숨 속에 섞여 사라져야만 하나

그대 가시리 덧없는 외로움
그대 가시리 한없는 슬픔
이내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그대가 걷어 주시리

이젠 잊혀질 지난 기억 속에
슬픈 영혼처럼 떠도는 눈물
그대 가시리 사무칠 그리움
그대 가시리 한없이 슬픈
나의 눈물이 저 하늘에 젖어
꿈처럼 내게 흐르네

—김상민, <가시리> 전문²⁴⁾

눈에 띄는 점은 이별·사랑·아픔·외로움·슬픔 등의 추상적인 단어들 이 여과 없이 나열되면서도 “바라볼 수도 없는 우리의 이별은/ 내리는 빗속에 가려진 아픔이여”라는 식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꿈을 꾸듯 떨어진 우리의 사랑은/ 한숨 속에 섞여 사라져야만 하나”라고 하면서 직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이별을 노래하는 방식이 이전보다 세련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속요 「가시리」 속 화자가 ‘임’의 입장을 헤아리고, ‘임’을 더 중시한 데 반해 김상민의 <가시리>에서 화자는 이별로 인한 ‘나’의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면서 그것을 상대방이 거두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뿐 절제된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이 노래에서 화자는 ‘나’ 중심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여기서 고려시대와 다른 현대의 시대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대중가요는 그런 대중을 위해 창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003년에 발표된 장연주의 <가시리>는 사랑과 이별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별이나 달 등 자연 대상을 이용하여 이별의 상황을 드러냈다는 것이 이전의 <가시리>와 달라진 점이다. 화자는 “별들도 찾지 않는 night 이제는 해도 없는 낮”에 “너 떠난 자리에서 내 몸은 굳어져 가고”라고 노래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김상민의 <가시리>보다는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되었다. 문장 종결이 ‘~다오’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름대로 현대적이며 세련된 기교와 형식을 갖추고 있는 대중가요가 나온 셈이다. 그러나 이 노래도 역시 쉬운 표현 덕분에 대중에게 호소력을 얻게 된다.

이후 2007년에 발표된 진주의 <가시리>는 고려속요 「가시리」와 제목이 같고 주제는 일맥상통하지만 원작과는 매우 다르다. 랩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서도 김상민의 <가시리>에서처럼 솔직하다 못해 자기중심적인 화자를 발견할 수 있다. “그대를 뒤로 떠나보내는 내 위로/ 눈물에 묻힌 노래”라며 화자는 이별로 인한 눈물과 슬픔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날 두고 지긋이 밟고 가시는 님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패러디하기도 한다. 또

“가시리 날 두고 멀리 떠나는 님아/ 나를 두고 가는 님의 발길 잡지 않겠어/ 가시리 날 두고 멀리 떠나는 님아”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떠나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고려속요 「가시리」 속 화자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원작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면서도 현대인들의 감수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주의 <가시리>와 같은 해에 발표된 SG워너비의 <가시리>는 독백과 동시에 떠난 사람에게 하는 말들이 담겨 있다. 특히 “rararararara 홀로 슬피 우는 새야/ 너도 사랑했던 님 찾아 우는구나/ 가슴이 쉬도록 그대 이름 부르고 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라는 반복을 통해 애상적 정서를 강조한다. 여기서 화자는 슬피 우는 ‘새’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시 곳곳에서 차용된 한의 정서를 연상시킨다. 이것은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²⁵⁾에서 그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노래에서 화자는 사랑했던 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겠다고 하는 등 매우 솔직하면서도 절제된 태도를 보여준다. 이 노래의 화자는 혼자서 이별의 슬픔을 견뎌내려 했던 고려속요 「가시리」의 화자와 닮아 있다. 민중의 노래였던 「가시리」의 친근한 정서를 불러와 대중가요에 접목시키면서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9년에 발표된 서주경의 <가시리>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화자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노래의 화자는 특히 “이별은 내 가슴을 시리게 하고”라며 노래한다. 또 “내 그리움도 가져가”라고 한다. 이 노래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대 없인 내 목숨 없으리”라는 과감한 표현이다. 직설적이고 솔직한 표현을 넘어서서 다소 극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 곡의 전반부에서는 떠나는 임의 입장을 헤아리는 듯하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결국 ‘나’ 중심으로 사랑과 이별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서주경의 <가시리> 속 화자는 원작과 달리 절제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곧 이어 발표된 이규영 & Friends의 <가시리>는 원작의 내용을 살리면서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자 했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물결이 일면 달빛에 그림자 사라져가듯”, “한 접시 애틡한 사연 두고 급히도 떠나시려나오”

25) 현전하는 최초의 서정시인 「황조가」의 가사는 “翩翩黃鳥 雌雄相依 今我之獨誰其與歸”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솔직하되 다듬어진 노랫말을 사용하고 있다. “설은님 보 내옵나니”와 “한 접시 애틡한 사연 두고 가시리 떠나시려나요”라는 표현은 고전의 느낌을 살려준다.

2010년에 발표된 버블시스터즈의 <가시리>에서는 고려속요 「가시리」와는 달리 이별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름 모를 꽃을 꺾어 내 품안에 안겨준” 사람, “서툰 설렘 하나 그 웃음 하나 남겨준” 사람은 “뜨겁게 날 안아주고 참 가뻐이 떠난” 그대로 묘사되고 있다. “한낫 깨어 날 꿈이리라/ 잠시 쉬어갈 마음이라”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사랑과 이별에 대해 달관하는 자세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 노래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문학성을 획득하려 했다는 것인데, “가시리 가시리 꽃” “바리고 가시리 꼭”은 전통시가에서 볼 수 있는 각운을 연상케 한다. 이는 가사를 보다 운율적으로 승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하나의 문장이 끝날 때마다 ‘~라라고 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음악적 요소이다. 이처럼 버블시스터즈의 <가시리>는 고려속요 「가시리」의 내용과 정서를 수용하여 보다 더 섬세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노래의 중간쯤에 나오는 “서러운 나의 맘이 찬란히 슬프더라”라는 표현은 역설적이어서 화자가 지닌 이별의 정서를 강조해준다. 노래가 중반을 넘어서면 “걸음걸음 내 맘을 밟고 이렇게 가시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나오는 구절²⁶⁾을 차용한 듯하다. 「진달래꽃」은 고려속요 「가시리」와 동일한 정서를 담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시다. 이것은 앞서 제시되었던 진주의 <가시리>에서도 차용되었다. 이처럼 교과서에 봤던 친숙한 시가를 대중가요에 반영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일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속요 「가시리」는 대중가요에 이르러 그 내용과 정서가 반영 혹은 변용되었다.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속요가 민간의 노래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²⁷⁾이다. 고려속요를 향유했던 이들이 삶을 노래했듯 대중가요를 즐기는 이들 또한 노래를 통해 삶의 애환을 승화시

26)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27) 김수경, 앞의 글, 50쪽.

키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노래가 지닌 궁극적인 기능이며 그로 인해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 의해 불리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려속요 「가시리」가 지닌 문학성이 대중가요 <가시리>에서는 그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각각의 노래들이 불리어진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학성보다는 상업성에 초점을 맞추어 창작될 수밖에 없는 대중가요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대중의 기호를 반영한 상투성,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보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3. 대중가요 <가시리>의 후렴과 코러스의 기능적 유사성

「가시리」의 정서적 특성은 음악적 특성을 통해 뒷받침된다. 고려속요 「가시리」는 한 수의 노래가 후렴구를 붙여서 몇 절에 분단되어 불린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음’과 ‘조흥구’다. 각 연의 마지막 행에 ‘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두 번째 행에는 ‘즐거’와 ‘나’가 반복된다. 이런 반복을 통해 노래의 정서는 더욱 풍부해지며 폭발하는 감정을 절제하도록 돕는 기능도 한다.

문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나’를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음악적인 면에서 보면 왜 ‘나’가 첨가되었으며 통일성이 주어지지 않고 왜 다섯 곳에 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여음이 생겨나는 데는 다양한 과정이 있으나, ‘나’의 경우 처음부터 여음으로 태어났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사실이 빈번히 사용됨에 따라 그 사실의 일반화가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그 전형이 생긴 것이다. 이후 그것이 화석화됨에 따라 무의미한 사실로 바뀌면서 조흥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²⁸⁾ ‘나’에 대해 양주동은 간단히 조흥구로 설명했고²⁹⁾ 정병욱은³⁰⁾ 「가시리」 전체의 구조로 보아 유의어보다는 여음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한 후, 처음에 ‘나니나’ 같은 피리의 구음이 문헌상에 정착되면서 ‘나’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즉, ‘나’

28) 강대구, 「가시리 연구」, 『청람어문학』 14집, 1995, 74쪽.

29)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95, 362쪽.

30) 정병욱, 「악기의 구음으로 본 별곡의 여음구」, 『관악어문연구』 2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7, 24쪽.

은 고려속요 「가시리」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시리」에서 ‘위’는 주로 그 자체가 지니는 장음적 성질에서 오는 어감과 배치되는 급박한 느낌의 여음구와 동시에³¹⁾ 나타난다. 이것은 각 연을 구분하는 분절의 기능³²⁾을 수행한다. ‘위’라는 탄사는 급박한 리듬의 전개를 차단시키는 휴지 역할인 셈이다. 「가시리」는 각 연마다 일정한 후렴구를 갖는 노래이기에 이러한 기능이 필요했던 것이다. 「가시리」에서의 후렴구는 노랫말에 후렴구가 전달하는 소리를 청자 또는 수용자가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그들에게 분위기를 감정을 자극시킴으로써 전반적으로 노래의 의미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³³⁾

또한 ‘위 증즐가 대평성대’를 통해서 「가시리」는 음악성을 획득하면서 동시에 우울한 정서를 승화시키게 된다. 그런데 ‘위 증즐가 대평성대’는 음악적 기능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원 가요에 ‘나눈’과 ‘위 증즐가 大平聖代’가 첨가된 ‘편사된 가시리’를 보면 각 연이 2행으로 구성되었고, 1행과 2행의 의미가 서로 호응되지 않는다.³⁴⁾ 최철의 지적처럼 “위 증즐가 大平聖代”는 원가(原歌)의 내용보다는 궁중연회의 즐거운 분위기, 자리에 맞추어 군왕의 은덕을 칭송하는 신하들의 기쁨을 표현한 구절³⁵⁾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대평성대’라는 말을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의미하는 넓은 뜻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시적 화자와 관련되어 있는 상태 즉, 두 남녀 간의 개인적 상황으로 좁혀 해석³⁶⁾하면 「가시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후렴구는 두 남녀 간의 애정이 아무런 갈등과 어려움 없이 아주 평온하고 좋은 상태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도 있다.

게다가 ‘위 증즐가 大平聖代’는 노랫말의 긴장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大平聖代’의 사전적 의미는 사멸해버리고 화석화된 후렴구의 가락적인

31) 윤영아, 「고려속요의 운율적 특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7, 112쪽.

32) 윤영아, 위의 글, 112쪽.

33) 김일렬, 애정시가의 시가사적 위치와 그 작품 세계, 『국어국문학』 84호, 국어국문학회, 1976, 242쪽.

34) 이정선, 앞의 글, 247~248쪽.

35) 최철, 『고려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274쪽.

36) 이정선, 앞의 글, 245쪽.

요소가 보태어진다. 각 연마다 ‘위~’를 되풀이함으로 극도로 긴장된 흐름을 가락의 선율로 제어하게 된다. 그런 요소가 없으면 그야말로 감정이 폭발해 버린다. ‘밀고-당김’의 조화이다.³⁷⁾

가시리 가시리잇고 누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누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

날리는 옧디 살라히고 브리고 가시리 잇고 누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 마누는 선히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盛代

설은님 보내옵노니 누는 가시는듯 도셔오쇼셔 누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

이처럼 고려속요 「가시리」의 특성은 대중가요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고려시대에 「가시리」를 민중뿐만 아니라 상층과 그들의 주변인들까지도 향유하는 노래로 만들 수 있었던 음악적 요소—여음, 조흥구, 후렴구 등—는 오늘날에 이르러 곡의 후렴뿐만 아니라 코러스 및 랩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고려속요의 여음 및 조흥구는 대체로 내용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들이다. 그러나 노래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대중가요에서 흔히 쓰이는 후렴 혹은 코러스와 유사한 기능으로 볼 수 있다.

1970~90년대의 <가시리>가 비교적 단순한 멜로디와 악기, 후렴과 코러스를 사용하여 불렀다면, 2000년대에 이르러 <가시리>는 더 많은 가수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어 불렀다. 고려속요 「가시리」의 현대적 변용은 앞서 제시되었던 이명우의 <가시리>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노래에서 인상적인 것은 이스라엘 전통민요 가락과 라단조의 구슬픈 느낌이 「가시리」 본래의 정서와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산별곡」의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인데, 이것은 원곡의 후렴구를 대신하여 노래의 흥

37) 강대구, 「가시리 연구」, 『청람어문학』 14집, 82쪽.

을 돋우고 있다. 고려속요에서 사용된 후렴구의 기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듯 이명우의 <가시리>는 내용이나 음악적 형식면에서 고려속요 「가시리」와 많이 닮아 있다. 이 노래는 1970년대 대중가요의 흐름에 따라 단순한 멜로디와 악기에 의존하여 불렀다. 통기타 반주와 간드러지는 목소리만으로 대중에게 호소력을 얻었다.

1980년대에 발표되었던 하수영의 <가시리>는 원곡의 구슬픈 느낌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쉽고 단순한 멜로디에 기대어 창작되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노랫말도 간결하고 솔직하게 표현되었다. 이명우의 <가시리>처럼 구슬프고 처량한 느낌을 자아내면서 원곡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이 노래 역시 통기타 반주와 창을 하는 듯 애절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대중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의 대중가요의 큰 특징은 재즈풍의 스윙리듬, 펑크, 차차차, 롬바, 고고 등의 다양한 리듬을 날개로 인기를 독차지하던 트롯 스타들이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통기타 하나만 들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점점 사라져갔다. 1990년대 초 과격적인 민방 TV의 탄생과 함께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표되는 신세대 가수들의 등장으로 트롯 가수들은 스포트라이트에서 서서히 밀려난다. 1990년대 초부터 민방 TV의 개국과 함께 미국, 일본의 프로그램을 모방한 노출 지향적인 TV 쇼의 등장과 지상파 방송 3사의 지나친 과열경쟁은 가요계를 댄스 가수 위주로 몰아가고 만다. 몇 개월 동안 거의 매일 TV에 나오다 새로운 댄스 그룹이 나오면 하루아침에 침몰하는 이른바 ‘일회용 밴드 가수’ ‘소모품 가수’들의 부침이 거듭되는 가운데 ‘서태지와 아이들’ 등의 신화가 만들어진 것도 이때다. 1992년 서태지가 <난 알아요>라는 랩을 불렀을 때 기성세대는 당황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젊은이들은 흥겹게 따라 불렀지만 어른들은 그냥 가사만 읽는데도 부담을 느껴야 했다. 리듬이 생소한데다 빠른 속도에 숨이 막혔던 것이다. 기성세대의 경멸은 비단 노래의 빠르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가사를 보고 뭔가 막힌 듯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너무 감각적이라서 동떨어진 세계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 너무 대담해서 놀라기도 했다.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신세대의 랩송을 듣고 노래에 메시지가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던 노래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랫말이 매우 감각적이며 직설적이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신세대 가요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그룹 이름에 다 제목까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으니 거부감이 더한 것도 사실이다. 요즘 대중가요에 관심이 없는 기성세대의 경우는 팝송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제목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노래들은 기성세대와 완전히 분리된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트롯과 포크음악은 TV쇼에서 어느새 추방되고 댄스, 발라드, 일변도로 제작되는 TV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그 명맥조차 찾아볼 수 없는 분야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가요계의 흐름 속에서 <가시리>는 계속 여러 가수들에 의해 불러진다. 대중가요 <가시리>는 가요계의 변화를 수용하기도 했고, 그 흐름과 무관하게 본래의 정서와 분위기를 유지하기도 했다.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1992년에 발표된 남상규의 <가시리>에서도 이명우의 <가시리>에서처럼 반복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못 가요 못 갑니다/ 날 두고 못 갑니다”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 표현이 곡의 처음과 중간에 배치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자의 감정을 강조해준다. 곡의 형식적 특성을 통해 그 정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노래는 1990년대 대중가요의 흐름과 무관하게 ‘트롯’으로 창작되어 발표되었다. ‘트롯’이라는 장르가 이미 대중에게 친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대중은 이 노래를 친숙하게 수용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중가요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직은 <가시리>가 여타의 장르로 수용되지 못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중가요 <가시리>의 형식적 변모 양상은 2000년대에 이르러 더욱 두드러진다. 앞서 발표된 대부분의 <가시리>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표현과 더불어 단순한 음악적 특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영어가사와 랩 등이 대수롭지 않게 사용된다. 트롯이나 포크음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기 시작했던 대중가요계의 흐름이 <가시리>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래가 담고 있는 보편적 정서와 상투적 표현은 거듭 사용되고 있다. 보편성과 상투성이야말로 대중가요의 중

요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2001년에 발표된 김상민의 <가시리>에서도 이전에 발표된 노래들처럼 반복적 표현이 사용된다. 이 노래에는 “그대 가시리”라는 표현이 네 번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가시는 입을 붙잡고 싶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화자의 마음이 강조된다. 고려속요 「가시리」에서처럼 반복적 표현을 통해 그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노래는 ‘발라드’라는 장르적 특성에 애상적 정서가 더욱 고조된다.

2003년에 발표된 장연주의 <가시리>에서도 반복적인 표현들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진 세월의 끝에도 거친 바람의 끝에도/ 언제나 너는 남아서 죽어도 죽어도 사라지지 않아”라는 표현이 세 번, “바람이여 불어다오 더 거세게/ 내 마음에 사무친 아픔을 제발 모두 전해주길/이 빗물 같은 눈가에 그댈 담아둔 채/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이 마음만 제발 알게 해 다오”라는 표현은 네 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후렴구는 화자의 슬픔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준다. 이 노래는 록, 포크음악으로 보다 더 강렬하게 곡의 느낌을 살려내고 있다.

대중가요 <가시리>는 후렴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중 장연주의 <가시리>는 곡 중간에 영어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곡의 전반부에서는 ‘night’, 후반부에서는 ‘oh please’이라는 영어 가사가 노래의 흐름에 맞지 않는 듯하면서도 고려속요에서의 탄사 ‘위’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는 아니지만, ‘night’와 ‘oh please’는 일정한 뜻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그 단어들이 지닌 의미는 이 노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채, 노래의 흐름을 차단시키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노래를 돋보이게도 한다.

별들도 찾지 않는 night 이제는 해도 없는 낮
너 떠난 자리에서 내 몸은 굳어져 가고
모진 세월의 끝에도 거친 바람의 끝에도
언제나 너는 남아서 죽어도 죽어도 사라지지 않아

바람이여 불어다오 더 거세게
내 마음에 사무친 아픔을 제발 모두 전해주길

이 빗물 같은 눈가에 그댈 담아둔 채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이 마음만 제발 알게 해 다오

모진 세월의 끝에도 거친 바람의 끝에도
언제나 너는 남아서 죽어도 사라지지 않아

바람이여 불어다오 더 거세계
내 마음에 사무친 아픔을 제발 모두 전해주길
이 빗물 같은 눈가에 그댈 담아둔 채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이 마음만 제발 알게 해 다오

모진 세월의 끝에도 거친 바람의 끝에도
언제나 너는 남아서 죽어도 죽어도 사라지지 않아

바람이여 불어다오 더 거세계
내 마음에 사무친 아픔을 제발 모두 전해주길
이 빗물 같은 눈가에 그댈 담아둔 채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이 마음만 제발 알게 해 다오

이렇게 나를 떠나고 무심히 가는 길마저
사라져 버리게 oh please!

바람이여 불어다오 더 거세계
내 마음에 사무친 아픔에
제발 제발 너 돌아오기를
이 빗물 같은 눈가에 그댈 담아둔 채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이 마음만 제발 알게 해 다오

—장연주, 「가시리」 전문³⁸⁾

곡의 중간에 코러스가 들어가는 것도 인상적이다. 그런데 고려속요 「가시리」를 변용하여 작사하면서 가요계의 유행에 따라 영어 가사를 중간에 넣은 것은 고전의 변용을 무색케 하는 행위였다. 여기서 고려속요와는 다르게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중가요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중가

www.kci.go.kr

38) 앨범명: 1집 Something Special, 작사: 장연주, 발매일: 2003.6.3.

요는 문학성이나 작품성보다는 상업성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대중가요의 후렴은 고려속요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고려속요 「가시리」에서 후렴구가 노래의 내용과 달리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자아냈다면 대중가요 <가시리>의 후렴은 노래의 정서를 그대로 살려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려속요가 절제된 음악 형식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해 대중가요는 보다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상민과 장연주의 <가시리>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가시리>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2007년에 발표된 진주의 <가시리>는 더욱 새로운 양상을 나타낸다. 진주의 노래에는 랩이 사용되는 것이 인상적이다.

song)

바보 같은 건지 아님 아니려고 하는 건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눈물이 되어 보내야 했던 건지
왜 이 작은 마음을 그댄 알고 있지만 때론 버려야만 했나
내겐 하나밖에 없던 사랑할 수 있던 자유
삶의 여유
only you I miss you

rap)

그대를 뒤로 떠나보내는 내 위로 눈물에 묻힌 노래
사무치는 나의 시로 yo 가시는님을
다시는 잡지는 않겠다는 굳은 마음의 시도
천년에 닿은 기도 yo 가시리 가시리
날 두고 지그시 밝고 가시는님은
부디 심은 사랑의 씨를 다시 가지고 가오
사노라도 님 향한 방향 태양은 그대이니
난 곧 해바라기라오

song)

가시리 날 두고 멀리 떠나는 님아
나를 두고 가는 님의 발길 잡지 않겠어
가시리 날 두고 멀리 떠나는 님아

이젠 등불 되어 가시는 길 밝혀드리오

rap)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움 속에 남은 쉬운 처술
피줄을 풀어나가는 외로움
이로써 덧을 놓인 것 같은 그대를
시로써 젖은 마음을 되돌려 드리리라
내가 진정 그대를 사랑했기에
나 그대가 가시는 길을 막을 순 없었나
나 또 다른 사랑을 자랑을 하듯 말하는
너를 볼 수는 없기에 사무치는 맘을 알기에

song)

무슨 말을 해봐도 넌 소용없는 거겠지
불리봐도 대답 없는 너는 항상 있겠지
어디론가 떠나버린 니 마음을 잡아도
먼지 속에 나비되어 날고 있겠지
부질없는 행동 속에 넌 곧 날 떠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대하겠지 네겐 없는 사람
꽃잎이 떨어졌어 붉게 물든 나의 맘속에
님의 사랑 또한 떠나버렸소
하얗게 떠가던 구름 속에서 한참을
님의 품이라고 살아왔었소
가시리 날 두고 멀리 떠나는 남아
나를 두고 가는 님의 발길 잡지 않겠어
가시리 날 두고 멀리 떠나는 남아
이젠 등불 되어 가시는 길 밝혀드리오
(왜 나를 택했나)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스쳐가는 인연으로 생각했었니
(왜 나를 택했나) 왜 하필 나였니
이런 게 너의 사랑이니
(가시리 날 두고)
(멀리 떠나는 남아)
(나를 두고 가는)
(님의 발길 잡지 않겠어)
(가시리 날 두고)
(멀리 떠나는 남아)

(이젠 등불 되어)
 (가시는 길 밝혀드리오)
 가시리 날 두고
 가시리 날 두고

—진주, <가시리> 전문³⁹⁾

이 노래는 시작부터 기타 반주와 함께 허밍을 통해 주의를 끈다. 처음부터 이전의 뽕짝 멜로디나 단순한 피아노 선율과는 확연히 다른 매력을 준다. 떠난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방식과 화자의 독백이 어우러지는데,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인이나 친구와 대화하듯이 편하게 툭툭 던지는 말투가 대중과의 거리를 더욱 좁혀준다. 랩 부분에서는 이 점이 더욱 강화된다. ‘yo’라는 표현은 수많은 랩송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고려속요에 나타난 조흥구 내지는 탄사를 연상케 한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노래의 흥을 돋우고, 맛을 살려주는 기능을 한다. 대중들은 랩을 통해 노래의 정서와 분위기를 만끽하게 된다.

앞서 발표된 곡들처럼 진주의 <가시리>에서도 후렴구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가시리 날 두고 멀리 떠나는 님아/ 나를 두고 가는 님의 발길 잡지 않겠어/ 가시리 날 두고 멀리 떠나는 님아/ 이젠 등불 되어 가시는 길 밝혀드리오”라고 반복적으로 노래하면서 임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심정을 강조해준다. 이 노래는 또 “only you I miss you” 같은 영어 가사를 넣어 젊은이들의 취향에 호소하였지만 원곡의 특성과는 조금 더 멀어지고 만다.

진주의 <가시리> 이후에 발표된 SG워너비의 <가시리>도 고전이 어떻게 변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SG워너비 노래의 특징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하여 반주한다는 것이다. 전주 부분에 서양 악기와 국악 악기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 피리 소리처럼 들리는 음은 고려속요 「가시리」 고유의 정서를 잘 살려준다. 이 노래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rarararara’는 고려속요의 여음구처럼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우러진다. 악기 소리나 휘파람 소리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로 인해 노래는 대중의 귀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게 된다. 또 이 노래 역시 다른

39) 앨범명: Life Goes On(Single), 작사: 김성현, 발매일: 2007.5.21.

노래들처럼 일정한 부분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앞부분에서 노래와 랩이 어우러지는 것도 인상적이다.

rarararara 홀로 슬피 우는 새야
너도 사랑했던 님 찾아 우는구나
가슴이 쉬도록 그대 이름 부르고 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

바람 부는 길목에서 그댈 기다려
그대 약속 내겐 목숨이라서
울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저 언덕 넘어까지 목을 빼고 기다려
내 손이 식기 전에 그대 돌아와야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잖아
그대에게 주었던 내 마음은 그대가 아니라면
갈 곳이 없어서 여기 멈췄어
바람 부는 길목에서 그댈 기다립니다
나를 떠나버린 그날의 기억처럼
작은 발자국 소리에 놀란 가슴은
오늘도 한숨만 쉬네요
어제 가신 님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지
불러 봐도 메아리만 돌아오네요

rarararara 홀로 슬피 우는 새야
너도 사랑했던 님 찾아 우는구나
가슴이 쉬도록 그대 이름 부르고 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

나만치 너를 찾아 슬피 우는 파랑새
하염없이 무너지는 내 모습이 어느새
추억은 기억이되 하지만 난 잊지 못해
내가 너를 잊는다는 게 말이나 돼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걸
떠난 그대란 사람 미워도 못하고
나 홀로 아직 너를 찾아
넌 내게 내 삶 속의 모든 이유

매일 밤하늘의 달빛만 바라만봅니다
 내 님 어디에 있는지 비춰줄까 봐
 사랑한다 사랑한다 못다 했던 말
 이제야 불러보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는 마음은
 바람소리에도 그대인 것 같아서

rarararara 홀로 슬피 우는 새야
 너도 사랑했던 님 찾아 우는구나
 가슴이 쉬도록 그대 이름 부르고 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

많은 세월 가면 그댈 잊을 수 있으려나
 눈을 감아야 잊을 수 있나
 하염없이 울던 새마져 날 떠나버리고
 나만 홀로 이렇게 슬피 우는구나
 그리움을 가슴에 안은 채 살아가겠지
 우린 서로 남이 되었으니

rarararara 홀로 슬피 우는 새야
 너도 사랑했던 님 찾아 우는구나
 가슴이 쉬도록 그대 이름 부르고 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

—SG워너비, 「가시리」 전문⁴⁰⁾

진주와 SG워너비의 <가시리>는 둘 다 발라드로 창작되었다. 그런데 이 후에 발표된 서주경의 <가시리>는 ‘트롯’으로 만들어졌다. 가요계의 변화 속에서도 트롯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즐긴다. 서주경의 <가시리>는 피아노 반주와 전통 악기, 코러스가 적절하게 어우러지면서 원작의 애상적 정서를 살려내고 있다. 가수의 애절한 목소리도 노래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트롯’도 전보다 더 세련된 장르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www.kci.go.kr

40) 앨범명: Story in New York(Special Album), 작사: 안영민, 발매일: 2007.11.23.

어여쁜 내님 떠나가시나 고운 추억만 남겨놓고서
님이 가실 걸음 어이 막으리 가신다니 고이 길 떠나소서
가슴에 새긴 내님 모습을 어이 잊고서 살아 갈까나
따스하던 님 목소리 그 손길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 있으리

소리 없이 찾아 온 이별은 내 가슴을 시리게 하고
하늘마저도 내 맘 아시나 빗물 되어 흐르네
저기 홀로 떠난 나의 사랑아 내 그리움도 가져가야지
나를 두고 멀리 가신 사랑아 그대 없인 나 살 수 없으리

저리 홀로 떠난 나의 사랑아
그대 없인 내 목숨 없으리

—서주경, <가시리> 전문⁴¹⁾

다음으로 발표된 <가시리>는 이규영 & Friends에 의해 불렸는데, 이 노래의 장르는 재즈이다. <가시리>가 재즈음악으로 탄생한 것은 처음이다. 재즈 특유의 음색과 어우러지면서 색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노랫말과 음악이 잘 어우러지면서 새롭고 세련된 <가시리>가 창작되었다. 이런 시도는 보다 폭넓게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만큼 <가시리>는 많은 이들에 의해 다양한 장르로 수용된 노래인 것이다.

물결이 일면 달빛에 비친 그림자 사라져가듯
한 접시 애틡한 사연 두고 급히도 떠나시려나요
설은님 보내옵나니 주저 앉아 울면 님은 메아리처럼 돌아오나요
뿌려진 꽃잎처럼 시들어가도 다시 오시나요
고운 님의 두 손 두 번 다시 놓지 않아요
한 접시 애틡한 사연 두고 가시리 떠나시려나요

—이규영 & Friends, <가시리> 전문⁴²⁾

최근에 발매된 버블 시스터즈의 <가시리>는 고려속요 「가시리」의 주제와 정서를 그대로 표현한다. 전주부터 구슬픈 피아노 선율로 시작되는데,

41) 앨범명: 6집 벤치, 발매일: 2009.1.1.

42) 앨범명: 1집 가시리, 작사: 이규영, 발매일: 2009.2.26.

주로 사극 OST⁴³⁾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적 느낌을 준다.

이름 모를 꽃을 꺾어 내 품 안에 안겨주고
서툰 설렘 하나 그 웃음 하나 남겨준 사람
뜨겁게 날 안아주고 참 가벼이 떠난 그대
멀리 날아가는 저 새들처럼 쉬이 갔더라
그 마음결을 휘휘 돌아 세월은 흐르더라

한낮 깨어날 꿈이리라 잠시 쉬어갈 마음이라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을 닮아 변한 사랑아
그대 가시리 가시리 꽃 나를 바리고 가시리 꼭
걸음걸음 내 맘을 밟고 이렇게 가시리
슬픈 이 내 노래
서러운 나의 맘이 찬란히 슬프더라

한낮 깨어날 꿈이리라 잠시 쉬어갈 마음이라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을 닮아 변한 사랑아
그대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꽃
나를 바리고 가시리 꼭
걸음걸음 내 맘을 밟고 이렇게 가시리

기억이란 또 무엇이며 남겨진 추억이 무엇이라
나를 위한 엘레지

사랑 애통한 노래여라 눈물 가득한 비극이라
멀리 날아가는 저 새를 닮아 떠난 사랑아

그대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꽃
나를 바리고 가시리 꼭
걸음걸음 내 맘을 밟고 영원히 가시리
슬픈 이 내 노래

—버블 시스터즈, <가시리> 전문⁴⁴⁾

43) 조수미의 「명성황후」 OST인 「나가거든」, 페이지의 「다모」 OST인 「단심가」 등이 그러하다.

44) 앨범명: 가시리(Single), 작사: 서승희, 발매일: 2010.2.5.

버블 시스터즈는 그대가 떠난 후에 “세월이 흘렀으”며 “지난 사랑이 한 낮 깨어날 꿈이자 잠시 쉬어갈 마음”이라고 노래한다. 그리고 뒤이어 “가시리 가시리”라고 노래한다. 고려속요 「가시리」에서는 처음부터 나왔던 ‘가시리’가 중간에 배치되면서 노래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좀 더 애상에 젖게 한다. 이와 같이 구슬픈 음색과 후렴을 통해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중가요 <가시리>를 살펴본 바, 고려속요 「가시리」와는 달리 곡의 형식적 특성들을 통해 노래의 정서를 최대한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고려속요 「가시리」는 그 내용과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여음과 조흥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노래의 흥을 돋우면서도 감정을 절제하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민요였던 「가시리」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형식적 제약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그에 비해 대중가요 <가시리>는 곡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살려줄 수 있는 형식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것은 대중가요에 형식적 제약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나와 거부감 없이 쉽고 편하게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시도된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고려속요 「가시리」는 고려시대의 노래이지만 현대에 와서도 유사한 내용, 유사한 정서로 술하게 노래로 만들어졌다. 「가시리」는 애초에 민중에 의해 불리었던 노래이기에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많은 가수들이 「가시리」를 노래했고 대중은 그 노래를 즐겨 들으며 따라 불렀다. 대중의 공감을 산 것은 사랑과 이별이라고 하는 보편적 정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별을 대하는 화자의 솔직한 태도로 인해 공감을 얻기도 했다.

고려속요 가시리」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별과 사랑에 대한 감정과 정서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러나 대중가요 <가시리>는 고려속요와 다르게 ‘민중에 의해서’ 창작된 노래가 아니라, ‘대중을 위해서’ 창작된 노

래다. 대중가요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장르이기에 상업성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가시리>의 변모 양상은 하나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다채로운 양상을 나타냈다. 각각의 대중가요 <가시리>가 발표되었던 당시의 대중적 기호가 가미되었지만 <가시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별과 사랑의 노래다. 고려시대에는 민중의 노래였지만 현대에는 대중의 노래로 재탄생한 것이다.

대중가요 <가시리>는 원작의 내용적 특성과 현대의 음악적, 형식적 특성이 묘하게 공존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고전성과 현대성이 어우러져 탄생한 대중가요 <가시리>는 지금까지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고려시대의 민중적 정서가 현대의 대중적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한 정서를 그리 어렵지 않은 표현을 통해 솔직하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시리>는 고려시대에 불리었던 과거의 노래가 아니라 지금도 꾸준히 불리고 있는 현재의 노래, 앞으로도 계속하여 불리게 될 미래의 노래라 할 수 있다.

대중가요 <가시리>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고전의 현대적 변용은 대중들에게 친근감을 준다. 고전이 지니고 있는 예스러운 분위기에 현대적 기교가 더해지면서 원작의 의미는 더욱 풍성해진다. <가시리>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듯이 다른 고전들도 현대적 변용의 과정을 거친다면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원작이 지니고 있는 문학성이 지나친 상업성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상민, 앨범명: 2집 Face, 작사: 이영환, 발매일: 2001.5.14.
남상규, 앨범명: 남상규 Best Collection, 발매일: 1992.11.
버블 시스터즈, 앨범명: 가시리(Single), 작사: 서승희, 발매일: 2010.2.5.
서주경, 앨범명: 6집 벤치, 발매일: 2009.1.1.
윤항기 · 윤복희, 앨범명: 윤항기 & 윤복희 대표곡 모음, 작사: 엄진, 발매일: 1981.4.1.
이규영 & Friends, 앨범명: 1집 가시리, 작사: 이규영, 발매일: 2009.2.26.
이명우, 앨범명: 1, 2회 실황 대학가요제, 작사: 고려가요, 발매일: 1978.3.1.
장연주, 앨범명: 1집 Something Special, 작사: 장연주, 발매일: 2003.6.03.
진주, 앨범명: Life Goes On(Single), 작사: 김성현, 발매일: 2007.5.21.
SG워너비, 앨범명: Story in New York(Special Album), 작사: 안영민, 발매일: 2007.11.23.

2. 논문과 단행본

- 강대구, 「가시리 연구」, 『청람어문학』 14집, 1995, 63~87쪽.
강주선, 「대중가요 가사의 텍스트에 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4.
권수정, 「고려가요 화자 연구—이별의 노래를 중심으로」, 창원대 석사논문, 2002.
김수경, 「속요의 현대화, 그 몇 가지 양상에 관한 시론」, 『한국시가연구』 19집, 한국시가연구학회, 2005, 47~87쪽.
김일렬, 「애정시가의 시가사적 위치와 그 작품 세계」, 『국어국문학』 84호, 국어국문학회, 1976, 46~76쪽.
박노준, 『한국문학개론』, 개문사, 1992.
박예경,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세상, 2000.
송태윤, 「고려가요의 텍스트성 분석—응결성과 응집성을 중심으로」, 조선대 박사논문, 2005.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95.
이정선, 「가시리의 편사와 문학적 해석」, 『한국언어문화』 41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231~256쪽.
정병욱, 「악기의 구음으로 본 별곡의 여음구」, 『관악어문연구』 2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7, 1~26쪽.
조윤동, 「대중가요 기사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정서 탐색: 해방 이후부터 1996년까지

- 지의 가요를 대상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1.
- 오승훈, 「합창곡 분석 연구: 김용진 작곡 「가시리」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2006.
- 유정준, 「합태군 혼성합창곡 「가시리」 분석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02.
- 윤영아, 「고려속요의 운율적 특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7.
-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 최철, 『고려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Abstract

Korea appeared in popular music “gasiri” research

Kim, Yu-mi · Lee, Seung-ha

Koryo sokyō ‘Gasiri’ Song of the Koryo Dynasty, but also similar in the present, as in many times a song is made up of similar sentiments. ‘Gasiri’ folk in the first place was called by the people himself, to transcend time and generations, many of these were among the consensus. ‘Gasiri’ gained the sympathy of the public called the universal emotions of love and breakup dealing with an honest attitude of the speaker revealed the familiar and easy to use, because the expression.

Sokyō considered basically intact the properties of ordinary sub-culture supernatant with Ginny but marginal by their creation, have been transmitted. Time was enjoyed by people of the characteristics of folk musical attributes, combined with the court as evil, more complex and sophisticated forms will be changed. Folk songs, people’s lives and is closely related. The people were singing folk songs of the tough life they reflect the sentiments of the populace with a focus on culture, when you view the property, folk and pop songs that are sufficiently paramount relevance. This is their roots in folk and popular songs sokyō consideration will have a close relationship.

If there are differences in sokyō royal courtesan and the king, was enjoyed by passport and they spread through the private sector, but the performances from popular music, and broadcast by the public via the media will be more widely enjoyed. Another sokyō through the remaining portion of yin and titillating the taste of the songs express the emotions alive and the acquisition of the literature, but popular music is creative, focusing on the commercial.

Koryo sokyō ‘Gasiri’ the separation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e era of love and reflects the feelings and emotions. Was a folk ballad that was originally due by the original. But the popular songs ‘Gasiri’ sokyō considered differently 'by the people' rather than work under the song, 'public order' work under the song. For this reason, ‘gasiri’ aspects of the transformation, while maintaining a flow of colorful patterns.

Since the 1970s, many songs released so far, ‘Gasiri’ for each song that were released at that time reflected the flow of popular music. Most popular song ‘Gasiri’ the emotion

of the original song intact, revealing the creative period of the most popular symbols that were added. Such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ver the course of popular music ‘Gasiri’ close to the original story also appeared in the form, and was far from the original script.

In the future, ‘Gasiri’ Is the public to call to hear a favorite for many people will be reborn again and again to provide emotional cleansing will give you the power to live. In this sense, considering sokyō ‘Gasiri’ Staying in the past, but now the song of songs, and even the future will be known as the song.(Key words : folk, Koryō sokyō, popular music, gasiri, classical modernity, songs, love and farewell)

▮ 위 논문은 2010년 10월 15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